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 및 최저임금 70만원 촉구!

하루 16시간노동에 월60만원!

학교 일숙직노동자 노동 실태 고발

기 자 회 견

- 일 시 : 2003년 6월 11일(수) 10시30분
- 장 소 : 대전시청 기자회견장

대전지역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본부(638-4951)/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638-0441)/사회당대전시위원회(535-0731)/노동자의 힘(932-1175)/참여자치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256-0092)/대전여민회여성노동센타(252-9790)/대전노동자회(934-5228)/실업극복연대일어서는사람들(223-1998)/외국인종합지원센타(631-6242)/대전참사랑일꾼회(631-4258)민주노동당충대학생위/대전지역학생연석회의

순서

● 참가자 소개

● 기자회견

1.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 최저임금 실태조사 분석결과
 - 나. 실태조사 결과
2. 최저임금 70만원 요구
3. 악덕기업주 고발

● 질의응답

1.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 최저임금 실태조사의 취지와 배경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목표로 1986년에 도입되었으나 17년이 지난 지금 시행초기 영향률이 10.7%에서 현재 영향률이 2%대에 머물러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에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임금억제수단으로 악용하여 법적 최저임금을 낮춰왔으며 이는 현재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방치 및 방조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늘리고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한 최저임금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전지역의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2002년 9월 1일 ~ 2003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 시급 2,275원 일급 18,200원 통상임금 514,150원
--

나.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최저임금 위반

○ 조사업체 154개 중 68개 업체인 44%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전지방노동청이 2002년 10월~11월 진행한 집중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최저임금 위반 현황(사업장 대비 13.3%)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청의 점검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반면 이번 조사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및 전화설문 조사한 것으로 신뢰도나

정확성에서 차이가 날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청소년(19세 이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응답자 38명 중 55.3%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31.9%가 최저임금에 못미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고령노동자들도 최저임금에 노출되어 경비용역에 소속된 6-70대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 노동에 월60만원을 받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9%,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주지’를 받은 경우는 9%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사용자들의 ‘주지의무’ 불이행이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4대보험 가입

○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률도 매우 낮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결론

○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사용자들에게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사용자들에 대한 계도와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도 매우 크다. 특히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또한 현행 최저임금이 매우 낮아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 소득분배 개선 등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바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70만원은 되어야 한다.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월환산 700,600원 요구

1.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인 현 최저임금 → 1/2 수준으로 인상

1) 정규노동자에 대비한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차별도 문제지만,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2002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해 51만원(시급 2,275원)으로 누가 봐도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보아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1).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표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1988-2003, 단위 : 원, %, 명)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408,468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517,129)	(2,064,721)	(33.9)	(24.9)

주: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3년은 2002년 10월 임금상승률(총액 10.5%, 정액급여 11.9%)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3) 더욱이 200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8.3% 인상에 그쳤다. 2002년 전체 노동자(5인 이상 상용직)의 임금이 11.2% 오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35%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은 그 상대적 비중이 더욱 낮아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4) 따라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국제적인 수준을 감안해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1/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5)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5인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140만 8,468원이다.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가 되려면 이의 절반인 70만 4,234원이 돼야 한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월 226시간 기준) 3,116원이 된다. 민주노총(양노총)은 2003년 9월 - 2004년 8월 적용 최저임금으로 십원이하 단위를 절삭해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 월급환산 700,600원)을 요구한다.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 2002년 5인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1,408,468)÷2

= 704,234

○ 시급환산 = 704,234원÷226시간=3,116원≒3,100(100원미만 절삭)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2003년 9월 - 2004년 8월 적용)>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 월급환산 700,600원)

※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의 기준이 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 시점이 될 2003년 9월-2004년 8월의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을 반영해야 하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주관적 요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02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했다.

3. 악덕기업주 ‘대청기업’ 고발

1. 최저임금법 위반
2. 근로기준법 위반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학교 일·숙직노동자 노동실태

- 근무시간 ; 17시 ~ 08시(15시간)
(주말 토13시 ~ 월08시)
- 임금 ; 60 ~ 62만원
- 유급휴일이나 휴가 없음
- 용역회사 소속
-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음.

나. 대청기업(주) 현황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79-11
- 설립년월일 : 1990년 12월 20일
- 대표이사 : 박민순
- 사업종목 : 경비용역,인력파견,위생용역,시설관리,기계경비
- * 대전지역 학교 경비용역의 80%이상을 독점하고 있음.

다. 법규위반

1> 최저임금법 위반

◎ 최저임금(시급 2,275원)을 적용했을 때 월 임금 계산

- ① 기본근로시간 8시간×2,275원 = 18,200원
- ② 연장근로시간 6시간×2,275원×1.5 = 20,475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③ 야간근로수당 8시간×2,275×0.5 = 9,100원

①+②+③

47,775원

④ $30\text{일} \times 47,775\text{원} = 1,433,250\text{원}$

⑤ 휴일근로수당 $24\text{시간} \times 2,275\text{원} \times 0.5 \times 4\text{일} = 109,200\text{원}$

=> ④+⑤ = $1,433,250\text{원} + 109,200\text{원} = 1,542,450\text{원}$

◎ 월체불임금

$1,542,450\text{원} - 620,000\text{원} = 922,450\text{원}$ (월차수당 등 제외)

◎ 3년근무자의 총 체불임금

$922,450\text{원} \times 36\text{개월} = 33,208,200\text{원}$ (년월차수당 제외)

2> 근로기준법 위반

- 근기법 54조에 의한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휴일이 없음
- 근기법 57조, 59조에 의한 년월차 유급 휴가를 주지 않음
- 근기법 55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3> 근로자파견법 위반 ; 위장도급

-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업체인 각 학교에서 일숙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노동자로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들은 각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할것임.

4> 기타사항

-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음.

대전지역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기간

2003년 5월 26일 ~ 5월 31일

2. 조사대상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규노동자(용역)와 여성노동자, 학생(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하였다.

3. 조사방식

직접 면접조사 및 전화설문조사

4. 설문내용

설문내용은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질문으로 1일 노동시간, 월급여액, 시급, 최저임금산정기준에서 삭제되는 제수당을 조사하였고 사용자의 재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주지 의무 이행여부, 최저임금법에 대한 인지도, 4대보험 적용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5. 조사결과

1> 기초현황

전체 설문수는 154명이고 남녀비율은 여성 77명(50%)이고 남성 77명(50%), 무응답 1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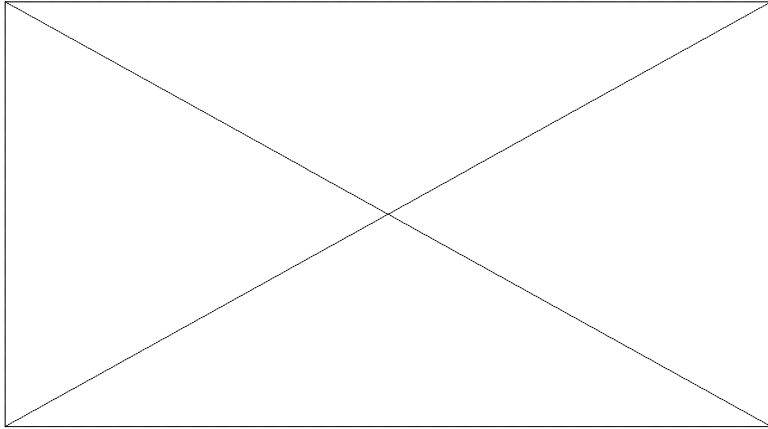


그림1> 남녀비율 (단위:명)

20대가 많은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청소년과 고령 용역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특히 고령노동자들은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며 70대까지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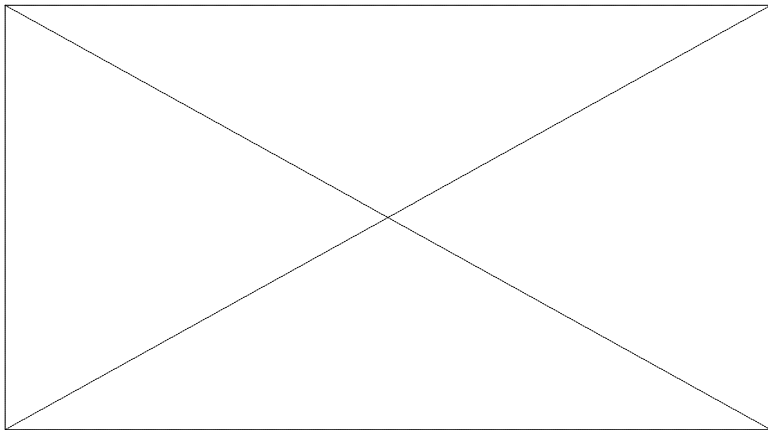


그림2> 응답자 연령대 비율 (단위:명)

2> 최저임금 위반업체 현황

조사업체 154개 중 68개 업체(44%)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조사대상의 44%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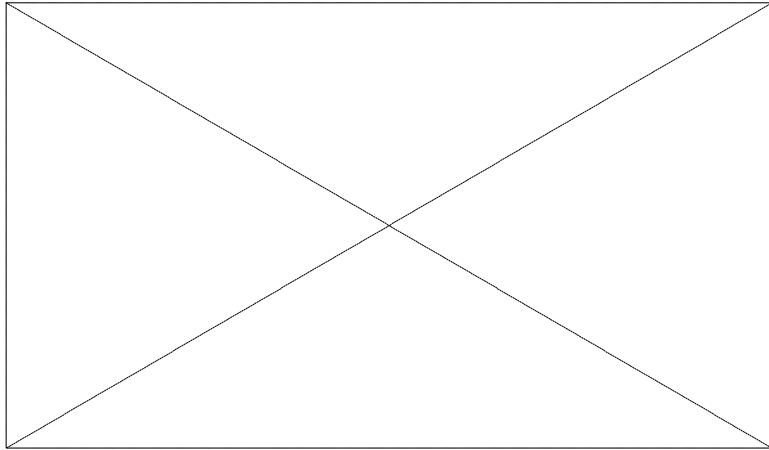


그림3> 응답자 중 최저임금 위반 비율 (단위:%)

청소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사각지대에 상당수 놓여있고 특히 10대 아르바이트의 경우 조사대상의 55.3%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 중 6-70대 고령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응답자중 20대이하와 50대 이상의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취업자들이 3-40대에 비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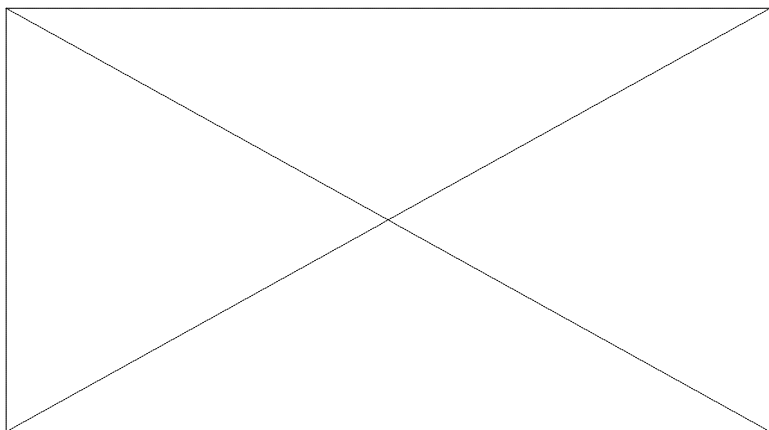


그림4> 최저임금 위반자 중 연령대별 비율 (단위:%)

최저임금 위반업체의 업종을 보면 식당과 PC방, 용역노동자 등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초중고학교의 일.숙직 용역노

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등 최저임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심각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업종으로는 연구소, 당구장, 학원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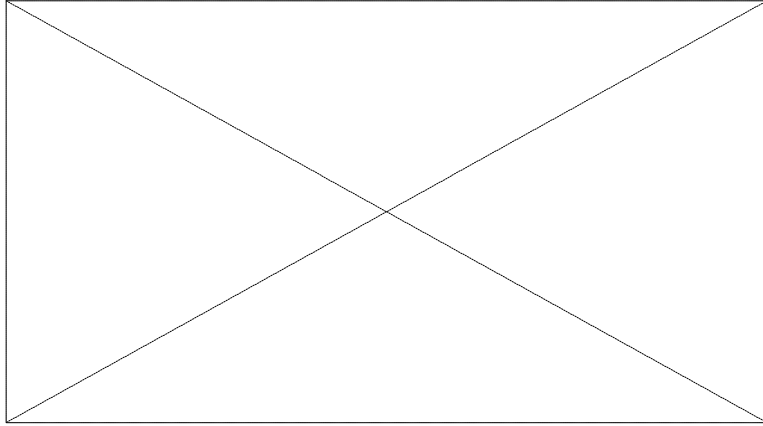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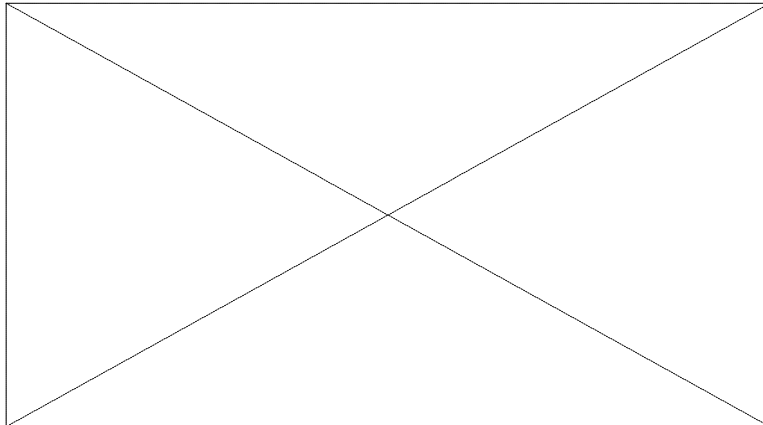


그림5> 최저임금 업체 업종별 현황

3> 최저임금법을 알고있는지 유무

설문 응답자의 67%가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고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조차 몰라 최저임금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 받은 적이 있는가의 물음에 대해 9.3%만이 주지 받았다고 대답해 사용자들이 최저임금법 제11조의 ‘주지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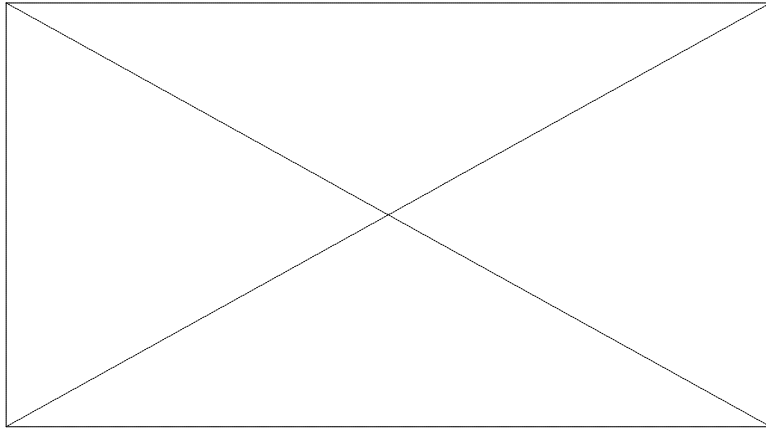


그림7> 최저임금 사용자 주지여부 (단위:%)

4> 4대보험 가입여부

응답자 154명 중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에 대한 가입율도 매우 저조해 저임금노동자와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이 보호받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가입 및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고령노동자나 청소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17.5%, 고용보험 11%, 건강보험 17.5%, 국민연금 9% 가입율을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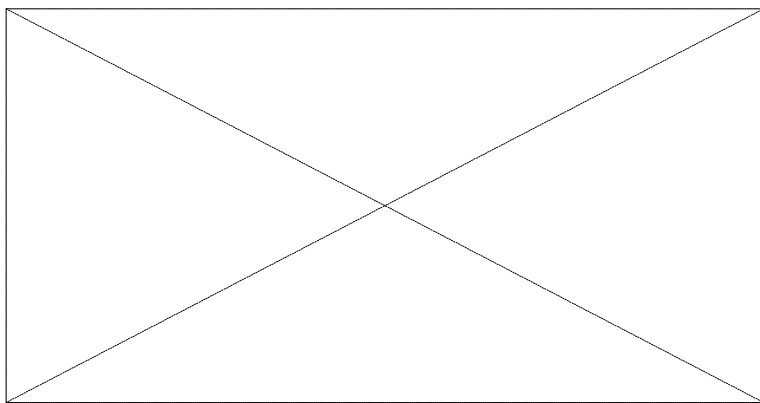


그림8> 4개보험 가입현황 (단위:명)

고 발 장

고발인

1. 박춘호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3

2. 박종갑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3(042-638-4951)

피고발인

대청기업(주) 대표이사 박민순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79-11

고발내용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제54조,55조,57,59조 및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
법을 위반

1. 당사자

고발인 박춘호는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 박종갑은 조직2국장이며 피고발인 박민순은 경비용역,인력파견,위생용역,시설관리,기계경비업을 하는 자로서 대전지역 학교의 일숙직업무를 위탁받아 수백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2. 위법사실

1> 최저임금법 위반

현행 월6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1일 15시간의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등을 포함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됨.

◎ 최저임금(시급 2,275원)을 적용했을 때 월 임금 계산

① 기본근로시간 8시간×2,275원 = 18,200원

② 연장근로시간 6시간×2,275원×1.5 = 20,475 (휴게시간 1시간 제외)

③ 야간근로수당 8시간×2,275×0.5 = 9,100원

①+②+③ 47,775원

④ 30일×47,775원 = 1,433,250원

⑤ 휴일근로수당 24시간×2,275원×0.5×4일 = 109,200원

=> ④+⑤ = 1,455,250원+109,200원 = **1,542,450원**

◎ 월체불임금

1,542,450원 - 620,000원 = **922,450원** (월차수당 등 제외)

◎ 3년근무자의 총 체불임금

922,450원 × 36개월 = 33,208,200원 (년월차수당 제외)

2>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한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휴일이 없음
- 근로기준법 57조, 59조에 의한 년월차 유급 휴가를 주지 않음
-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3> 근로자파견법 위반 ; 위장도급

-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업체인 각 학교에서 일숙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노동자로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들은 각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할것임.

2003년 6월 11일

고 발 인 박 춘 호 (서명)

박 종 갑 (서명)

대전지방노동청장 귀하